

혼술 및 사회 음주 집단의 심리적 특성[†]

전혜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수련임상심리사

이훈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전혜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대학생 문제 음주 집단을 혼술 및 사회 음주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양식, 우울 및 사회불안 등 문제 음주와 연관된 심리적 요인을 비교하였다. 대학생 330 명에게 한국판 알코올 장애 간이 선별검사(AUDIT-K), 도식 질문지 단축형, 문제중심 대처 양식 척도, 음주 동기 척도,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 및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를 실시하였고, AUDIT-K 점수와 음주 습관 질문 결과를 바탕으로 혼술 집단 24명, 사회 음주 집단 140명, 병행 음주 집단 30명, 비위험 음주 집단 121명을 선별하였다. 연구 결과,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단절과 거절 및 타인 지향성 도식 영역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대처 양식 중 억제형 대처 및 반응형 대처가 더 높았다. 또한, 혼술 집단은 대처 동기와 평소 경험하는 우울 및 사회불안의 정도도 더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혼술 및 사회 음주 집단이 문제 음주의 취약성 요인으로 알려진 초기 부적응 도식 및 대처 양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평소 경험하는 심리적 부적응에서도 상이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양식, 우울 및 사회불안에서 더 부적응적인 특성을 보임을 확인함으로써, 알코올 사용장애의 위험 요인이자 재발 요인으로 알려진 혼술과 연관된 심리적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혼술, 사회 음주,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양식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며, 2022년 한국임상심리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이 논문은 2021년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재원으로 미래기초 사회과학연구인력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훈진,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2-880-5997, E-mail: hjlee83@snu.ac.kr

대학 시기는 음주 빈도 및 음주량이 증가하는 시기로(질병관리본부, 2017), 이때 형성된 부적응적인 음주 습관은 이후 심각한 문제 음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Wechsler, Lee, Kuo, & Lee, 2000). 사회 음주(social drinking)는 대학생 사이에서 주요한 음주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Gonzalez, Collins, & Bradizza, 2009), 사회 음주란 친구, 지인과의 사교 모임, 일과 관련된 회식과 같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이혜규, 2017).

한편, 혼술(solitary drinking)은 ‘혼자서 마시는 술’의 줄임말로, 집 혹은 외부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행위에서부터 비음주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행위까지 비교적 넓은 정의를 가진다(이혜규, 2017; Skrzynski & Creswell, 2020). 국내 연구 중 이혜규(2017)의 연구와 박여진, 오유미, 양유선(2019)의 연구에서는 혼자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혼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최근 연구는 대학 시기에 증가하는 혼술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Skrzynski & Creswell, 2020). 대학생 사이에서 나타나는 혼술 양상은 일탈적인 현상으로 여겨지며, 초기 성인기에 나타나는 혼술 양상은 알코올 사용장애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Corbin, Waddell, Ladensack, & Scott, 2020). 또한 Skrzynski와 Creswell(2020)의 연구에서는 혼술이 알코올 사용의 증가와 더불어, 부정 정서, 음주의 대처 동기(coping motive)와 연관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이 연구는 혼술 집단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특성을 직접 비교하진 못하였다. 또한 대처 동기 외의 다른 음주 동기 변인과 개인의 부적응적 신념과 같은 음주의 근원 변인에

서 혼술 및 사회 음주 집단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을 비교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두 집단이 음주 동기 및 평소 경험하는 심리적 불편감에서 서로 다르다고 가정한다(Keough, O'Connor, Sherry, & Stewart, 2015). 사회 음주만 하는 집단은 주로 사교 동기 및 동조 동기(conformity motive)로 술을 마시며, 대학생 집단은 음주를 사회적 규범으로 인식하면서 동료의 부정적 평가를 피하고 승인을 얻기 위해 폭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정화, 노기영, 2016; Borsari & Carey, 2001). 특히 동조 동기로 술을 마시는 대학생 집단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되지 않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Borsari & Carey, 2003; Perkins, 1997).

반면, 혼술 집단의 음주 빈도는 사교 및 동조 동기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거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처 동기가 혼술 집단의 음주량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규, 2017; Gonzalez et al., 2009). Creswell 등(2015)의 연구에서는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평소 우울, 불안 등의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부정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혼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대안적 방법을 택하기보다 음주를 하는 사람들은 알코올 의존에 더욱 취약한 경향이 있으며, 혼술은 문제 음주에 더 취약한 음주 유형으로 나타났다(Gonzalez & Skewes, 2013).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때, 대학생 혼술 집단 및 사회 음주 집단은 모두 알코올 사용장애로의 병리적 이행에 기여하는 취약 요인을 보유하

고 있지만, 각 집단의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은 상이할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연구 중 음주 유형을 구분하여 음주 동기 및 심리적 부적응을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에서 알코올 사용장애와 연관된 것으로 가정하는 취약 요인 중 하나는 초기 부적응 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이다. Young, Klosko와 Weishaar(2003)는 물질 사용 장애의 기저에 아동기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초기 부적응 도식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며, 알코올 사용을 초기 부적응 도식으로부터 촉발된 정서적 고통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p.9, 161). 초기 부적응 도식이란 타인과의 안정 애착, 자율성 등 아동기 핵심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형성되는 자기, 타인, 세상을 이해하는 인지적 틀이다(Young et al., 2003). 선행 연구에서 음주는 도식 활성화에 따른 부정 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타났으며(Ball & Young, 2000), 문제 음주에 특징적으로 기여하는 초기 부적응 도식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문제음주자들이 도식 활성화에 대처하는 방식을 탐색해왔다(e.g., Riso, du Toit, Stein, & Young, 2007). Riso 등(2007)에서는 알코올 의존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초기 부적응 도식의 차이를 탐색한 선행 연구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Decouvelaere, Graziani, Gackiere-Eraldi, Rusinet과 Hautekeete(2002: Riso et al., 2007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통제 집단에 비해 알코올 의존 집단이 부족한 자기 통제, 불신, 자기희생 및 유기 도식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반면에, Roper, Dickson, Tinwell, Booth와 McGuire(2010)의 연구에서는 자기 희생 도식과

알코올 의존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문제 음주와 도식 영역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는 문제 음주 집단 내의 음주 유형을 구분할 때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혼술 및 사회 음주 집단을 구분하여 두 집단 간 초기 부적응 도식의 차이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나, 두 집단이 음주 동기 및 평소 경험하는 부정 정서, 사회적 불편감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밝힌 선행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두 집단의 문제 음주와 연관된 초기 부적응 도식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Luoma, Guinther, Lawless DesJardins와 Vilardaga(2018)의 연구에서는 자기(self) 존재에 대한 결함을 느끼는 수치심(shame)이 혼술의 빈도 및 음주량과 연관이 있으나 사회 음주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onzalez와 Skewes(2013)의 연구에서는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사회적 불편감을 더 높은 정도로 경험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Goldstein, Haller, Mackinnon과 Stewart(2019)는 자기 표현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회피 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혼술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자기(self)에 관한 부정적 인식, 대인 관계 불편감 및 정서적 억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초기 부적응 도식 중 자기의 결함 및 수치심, 친밀한 관계의 회피와 불신과 관련한 신념을 포함하고 있는 단절과 거절 도식(disconnection and rejection)이 혼술 집단의 음주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한편, 사회 음주 집단은 주로 사고 동기와 동조 동기로 음주를 하며, 사회적 배제를 피하고 타인의 승인을 추구하기 위해 폭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rsari & Carey, 2001). Neighbors, Larimer, Markman Geisner와 Knee(2004)의 연구에서는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통해 자기 가치(self-worth)를 유지하는 경향성이 음주의 사고 및 동조 동기, 그리고 문제적 사회 음주 행위와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사회 음주 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 음주 집단의 문제 음주는 타인의 승인과 인정을 받는 것을 개인의 욕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을 반영한 타인 지향성 도식 영역(Other directedness)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양식(coping styles)에서도 서로 다르다고 가정한다(Luoma, Pierce, & Levin, 2020). 억제형 대처 양식(suppressive coping style)은 문제 상황을 회피하고 부정하려는 대처 경향성을 뜻하며(Hepner, Cook, Wright, & Johnson, 1995), 억제형 대처 양식을 보이는 음주자들은 알코올 사용이 긴장을 낮출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는 결국 음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asking, Lyvers, & Carlopio, 2011). 그러나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 간 억제형 대처 양식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부정 정서를 회피하려는 경향성이 혼술 집단의 음주 빈도를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사회 음주 빈도는 예측하지 못하였다(Luoma et al., 2020).

한편, 선행 연구들에서는 회피적 대처(avoidant-coping) 뿐만 아니라 정서 중심 대처

(emotion-focused coping) 또한 음주와 관련된 변인으로 나타났다(Cooper, Russell, & George, 1988). 정서 중심 대처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것과 연관된 대처 방식을 뜻하며(이동귀, 박현주, 2009), 여기에는 부적절한 정서 표출, 사회적 지지 추구 및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려는 대처 양상 등이 포함된다(French, 2007). Evans와 Dunn(1995)의 연구에서는 정서 중심 대처가 참여자들의 음주량 및 음주 관련 문제의 증가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Hasking 등(2011)의 연구에서는 정서 중심 대처가 문제 음주의 정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의 혼재된 결과는 정서 중심 대처가 정서의 표현, 스트레스의 회피와 같은 이질적인 대처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Hepner 등(1995)은 정서 중심 대처를 문제 상황에 대한 회피(억제형 대처 양식)와 정서적 반응(반동형 대처 양식)으로 구분 지었으며, 반동형 대처 양식(reactive coping style)은 강렬한 감정 반응을 보이거나 충동적으로 대응하는 문제 해결 경향성으로 정의된다(이동귀, 박현주, 2009). 정서 중심 대처와 음주에 관한 혼재된 연구 결과를 Hepner 등(1995)의 대처 분류에 따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국내 연구 중 혼술과 사회 음주 집단을 구분하여 대처 양식의 차이를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혼술 및 사회 음주 집단을 구분하여 두 집단이 억제형, 반동형 대처 양식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험 표집법을 사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대인 관계 갈등 및 우울 등의 부정 정서가 혼술 소비

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reswell et al., 2015; Gonzalez et al., 2009), 혼술 집단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nzalez & Skewes, 2013). Keough 등(2015)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사회 음주 집단의 문제 음주를 부적절한 방향으로 예측한 반면, 혼술 집단의 문제 음주는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초기 성인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불편감(social discomfort)은 혼술 빈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Skrzynski & Creswell, 2020). 이처럼 해외 문헌에서는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이 평소 경험하는 부정 정서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내 문헌에서 음주 유형을 구분하여 부정 정서의 정도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선행 연구마다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을 구분한 기준이 서로 달라, 두 집단의 차별적 특성을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혼술 경험 유무에 따라 혼술을 한 번 이상 경험한 참여자를 혼술 집단으로, 혼술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를 사회 음주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e.g., Bourgault & Demers, 1997), 다른 연구에서는 총 음주 빈도 중 혼술 및 사회 음주 빈도에 따라서 음주 유형을 구분하였다(Skrzynski & Creswell, 2020). 혼술 경험의 유무에 따라 음주 유형을 구분할 경우, 혼술 집단에 사회 음주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포함되고 심지어 비위험 음주자가 포함됨에 따라 사회 음주 집단과 구분되는 혼술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일부 연구에서는 혼술 집단에 병행 음주자를 포함한 한계로 인해 두 집단이 사회적 불편감에서 차이가 없다는 등의 혼재된

결과가 보고되었다(e.g., Gonzalez & Skewes, 2013). 따라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 음주를 병행하는 음주자와 비위험 음주자가 포함되지 않은 혼술 집단을 구분하고 심리적 특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집단 구분 문제를 보완하고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차별적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대학생 음주 집단을 문제 음주 집단과 비위험 음주 집단으로 구분한 후, 문제 음주 집단을 다시 혼술 집단, 사회 음주 집단, 병행 음주 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네 집단(혼술 집단, 사회 음주 집단, 병행 음주 집단 및 비위험 음주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이 취약성 요인인 초기 부적응 도식과 동기 요인, 대처 양식, 우울과 불안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혼술 집단과 병행 음주 집단 및 비위험 음주 집단을 구분함으로써 사회 음주 집단과 구분되는 혼술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명확히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들에 기초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혼술 집단은 초기 부적응 도식 중 단절과 거절 영역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 음주 집단은 타인 지향성 영역이 혼술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가설 2: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억제형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사회 음주 집단은 혼술 집단에 비해 반동형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가설 3: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대

치 동기가 높고, 사회 음주 집단은 사고 및 동조 동기가 혼술 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4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우울과 사회불안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방 법

연구참여자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모집한 대학생 33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비음주자와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음주 유형 구분이 가능한 31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 중, 남성은 109명(34.6%), 여성은 206명(65.3%)이었다. 참여자들을 알코올 장애 간이 선별 검사(AUDIT-K)에서 절단점 8점을 기준으로 문제음주자와 비위험 음주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문제음주자로 분류된 집단을 혼술 집단, 사회 음주 집단 및 병행 음주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혼술의 빈도가 연평균 빈도 월 2~3회 이상이지만 사회 음주 빈도는 그보다 낮을 경우에는 혼술 집단으로, 사회 음주 빈도가 월 2~3회 이상이지만 혼술의 빈도는 그보다 낮을 경우 사회 음주 집단으로, 혼술과 사회 음주의 빈도가 모두 월 2~3회 이상이면 병행 음주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코로나 19(COVID-19)로 의도치 않게 혼자 술을 마시게 된 경험이 월 2~3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사회 음주 집단 혹은 비위험 음주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집단 선별 결과 혼술 집단은 총 24명, 사회 음주 집단 140명, 병행 음주 집단 30명, 비위험 음주 집단은 121명으로 확인되었다. 혼술 집단의 경우 남성은 9명(37.5%), 여성은 15명(62.5%)이었으

며, 사회 음주 집단의 경우 남성은 57명(40.7%), 여성은 83명(59.3%)이었다. 병행 음주 집단의 경우 남성은 9명(30.0%), 여성은 21명(70.0%)이었으며, 비위험 음주 집단의 경우 남성은 34명(28.1%), 여성은 87명(71.9%)이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IRB No. 2104/004-001).

측정 도구

한국형 알코올 장애 간이 선별 검사(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 문제 음주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선별 검사(AUDIT)를 서경현(2003)이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위험 음주에 관한 3문항, 의존 음주에 관한 3문항과 알코올로 야기된 문제에 관한 유해 음주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경현(2003)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였다.

음주 유형 구분 척도. 문제음주자 집단을 혼술, 사회 음주 및 병행 음주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제작한 척도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1은 평소 자신의 음주 습관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을 고르도록 하였으며, '1) 주로 혼자 술을 마시는 편이다', '2) 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편이다', '3) 혼자서도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술을 마신다', '4)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 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2는 두 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지난 1

년 동안 혼자 술을 마신 평균 빈도와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혼자 술을 마신 경험의 평균 빈도를 고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항 3에서는 사회 음주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경험의 평균 빈도를 골라 표시하도록 하였다.

음주 동기 척도(Drinking Motives Questionnaire: DMQ). Cox와 Klinger(1988)가 제작한 음주 동기 모형에 Cooper(1994)의 동조 동기 문항을 추가하여 신행우(1998)가 제작한 척도이다. 고양, 대처, 동조, 사교 동기 요인 등 4개 요인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국판 DMQ의 내적 합치도는 고양 동기가 .76, 대처 동기가 .89, 동조 동기가 .80, 사교 동기가 .85였으며(신행우, 1998), 본 연구에서는 고양 동기 .80, 대처 동기 .91, 동조 동기 .79, 사교 동기 .89로 확인되었다.

도식 질문지 단축형(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YSQ-S). Young(1994)이 개발한 척도를 이미열(200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5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 영역과 각 영역의 하위 도식 15개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도식 영역 중 단절과 거절 및 타인 지향성 도식 영역을 사용하였다. 이미열(2006)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63~.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단절과 거절 영역 .96, 타인 지향성 영역 .87로 나타났다.

문제중심 대처 양식 척도(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PF-SOC). Heppner 등(1995)

이 개발하고 이동귀와 박현주(2009)가 번안, 타당화한 척도로, 문제 해결 상황에서 사용하는 대처 양식을 측정한다. 3개 요인의 총 18문항으로, '사려형 대처', '억제형 대처' 및 '반동형 대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한국판 PF-SOC의 내적 합치도는 사려형 대처 .77, 억제형 대처 .76, 반동형 대처 .73이었으며(이동귀, 박현주, 2009), 본 연구에서는 사려형 대처 .75, 억제형 대처 .84, 반동형 대처 .73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센터(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검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이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검구 등(2001)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Korean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K-SIAS).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하고 김향숙(2001)이 번안 및 타당화했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김향숙(2001)이 제시한 내적 합치도는 .92였다. 본 연구에서는 .94로 확인되었다.

통계분석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을 위한 카이제곱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집단 차 분석에 앞서 혼술 집단의 표본수가 30명 이하인 점을 고

려하여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였으며, 등분산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Levene의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이후 집단에 따라 각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을 통제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으며, 등분산성이 가정되지 않는 경우 ranked ANCOVA를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사후 검정은 Scheffé 및 대비검정(contrast test) 결과를 확인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정보에서 각 음주 유형 집단이 서로 동질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성비는 집단 차가 없었으나, $\chi^2(3, N=315)=4.94, p=.17$,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표 2에서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F(3, 311)=6.11, p<.001$. 이에 연령을 통제한 후 각 변인에 대한 집단 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음주 유형 집단 간 문제 음주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혼술 집단, 사회 음주 집단 및 병행 음주 집

단은 비위험 음주 집단에 비해 문제 음주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F(3, 311)=249.48, p<.001$, 문제 음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에서 집단 간 초기 부적응 도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단절과 거절 영역에서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 및 비위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F(3, 311)=9.39, p<.001$. 사회 음주 집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한 타인 지향성 영역에서도 혼술 집단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F(3, 311)=3.45, p=.017$,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대처 양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억제형 대처 양식에서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 및 비위험 음주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F(3, 311)=7.88, p<.001$. 반동형 대처 양식에서도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나, $F(3, 311)=9.73, p<.001$, 가설 2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집단 간 음주 동기의 차이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 혼술 집단과 병행 음주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 및 비위험 음주 집단에 비해 대처 동기에서

표 1. 음주 유형 집단 간 성비 비교(N=315)

		혼술 ^a (n=24)	사회음주 ^b (n=140)	병행 음주 ^c (n=30)	비위험 ^d (n=121)	$\chi^2(p)$
성별	남	37.5%	40.7%	30.0%	28.1%	4.94
	여	62.5%	59.3%	70.0%	71.9%	

표 2. 음주 유형 집단 간 연령 비교(N=315)

측정치	혼술 ^a (n=24)	사회음주 ^b (n=140)	병행 음주 ^c (n=30)	비위험 ^d (n=121)	F	Scheffé
연령	22.08(2.20)	20.22(2.09)	20.93(2.43)	20.92(2.14)	6.11***	a > b

*** $p<.001$.

표 3. 집단 간 초기 부적응 도식 및 대처 양식의 차이(N=315)

	혼술 ^a (<i>t</i> =24)	사회음주 ^b (<i>t</i> =140)	병행 ^c (<i>t</i> =30)	비위험 ^d (<i>t</i> =121)	<i>F</i>	사후 검정	η^2
단절과 거절	75.50(23.47)	48.47(18.41)	62.00(27.45)	51.75(21.09)	9.39***	a > b,d	.08
타인 지향성	28.00(8.40)	21.84(8.13)	24.43(8.78)	22.24(8.46)	3.45*	a > b,d	.03
사려형 대처	23.50(4.81)	24.71(4.22)	23.67(3.59)	24.19(5.14)	0.86		.01
억제형 대처	17.67(4.57)	12.99(4.59)	16.47(5.75)	13.86(5.03)	7.88***	a > b,d c > b	.07
반동형 대처	14.92(3.99)	12.11(3.73)	15.53(4.59)	12.29(3.46)	9.73***	a,c > b,d	.09

p*<.05. **p*<.001.

표 4. 집단 간 음주 동기 및 우울, 사회불안의 차이(N=315)

	혼술 ^a (<i>t</i> =24)	사회 음주 ^b (<i>t</i> =140)	병행 ^c (<i>t</i> =30)	비위험 ^d (<i>t</i> =121)	<i>F</i>	사후 검정	η^2
고양 동기	11.79(3.71)	10.04(3.69)	11.53(3.25)	8.38(3.72)	10.96***	a,b,c > d	.10
동조 동기	11.25(3.63)	11.14(3.78)	11.13(3.29)	10.39(3.38)	1.21		.01
대처 동기	14.08(4.02)	9.94(4.22)	12.43(3.67)	7.61(3.82)	24.98***	a,c > b > d	.19
사교 동기	14.42(3.02)	15.82(2.85)	15.83(3.40)	13.16(3.30)	19.07***	b,c > d	.16
우울	28.08(13.06)	16.45(10.60)	20.97(13.70)	17.97(11.30)	6.71***	a > b,d	.06
사회불안	46.67(12.75)	27.64(13.28)	33.13(17.01)	32.56(16.35)	5.53**	a > b,c,d	.10

p*<.01. *p*<.001.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F(3, 311)=24.98$, $p<.001$, 사교 동기의 경우 사회 음주 집단과 병행 음주 집단이 비위험 음주 집단에 비해 높았다, $F(3, 311)=19.07$, $p<.001$. 동조 동기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F(3, 311)=1.21$, $p=.31$, 가설 3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사회불안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혼술 집단의 우울 점수는 사회 음주 집단 및 비위험 음주 집단에 비해 높았다, $F(3, 311)=6.71$, $p<.001$. 사회불안 점수도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 병행 음주 집단 및 비위험 음주 집단에 비해 높았다, $F(3, 311)=5.53$, $p=.001$. 이에, 가설 4는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알려진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양식, 음주 동기, 우울 및 사회불안에 대한 혼술 및 사회 음주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단절과 거절 도식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여, 혼술 집단은 자신을 부족하고 취약한 존재로 여기고 사회적 장면에서 거절, 비난을 예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유성진, 권석만, 2008; Young et al., 2003). 더불어 단절과 거절 도식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정서와 사고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유아진, 서영석, 2017;

Young et al., 2003),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자신의 내적 경험의 인식과 표현이 억제되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철수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한편, 사회 음주 집단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가정한 타인 지향성 도식 영역에서도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회 음주 집단이 사고 동기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인 점과 연관되었을 수 있으며, Kuntsche, Knibbe, Gmel과 Engels (2005)의 연구에서는 사고 동기로 음주를 하는 이들은 심리적 특성에서 비교적 적응적인 양상을 보였다. 즉, 사고 동기로 음주를 하는 대학생 음주 집단은 혼술 집단과 비교할 때 정서 및 대인 관계 특성에서 더 적응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초기 부적응 도식도 전반적으로 낮을 수 있다.

더불어, 단절과 거절 및 타인 지향성 도식 영역에 속한 일부 도식이 취약한 자기(vulnerable self)에 관한 신념을 반영한 도식이라는 선행 연구의 가정을 기반으로 할 때(조성호, 2001),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두 도식 영역 모두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결과는 자신에 관한 부정적 신념을 조절하기 위해 음주를 하는 이들이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택한다는 선행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Bilevicius, Clark, Johnson, & Keough, 2020). 두 도식 영역의 하위 도식인 ‘결함/수치심(defectiveness/shame)’, ‘정서적 결핍(deprivation)’, ‘복종(subjugation)’ 등의 도식은 무능하고 결함이 많다고 인식하는 내적 자기의 취약성과 친밀한 관계에서 상실과 고립을 예상하고 불신하는 자기-타인 관계에서의 취약성을 반영하

는 도식들이다(조성호, 2001). 즉, 두 도식 영역 모두 지각된 개인적인 결함을 반영하며, 이러한 자기 또는 타인에 관한 부정적 신념과 이로 인한 정서적 불편감을 조절하기 위한 방략으로 사회 음주 보다는 혼술을 택한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대처 양식의 집단 간 차이에서 혼술 집단은 억제형 대처 양식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혼술 집단은 스트레스 사건 혹은 정서적 불쾌감을 회피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사회 음주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반동형 대처 양식에서도 혼술 집단이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초기 부적응 도식은 자기 패배적인 대처를 유발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기반할 때(김은정, 김진숙, 2010; Pierce & Lydon, 1998), 혼술 집단이 부적응적 대처 양식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난 점은 혼술 집단이 초기 부적응 도식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난 점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회 음주 집단은 동조 동기가 아닌 사고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사고 동기는 부적응적 대처 양식과 관련이 없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Hasking et al., 2011), 억제형 및 반동형 대처 양식은 사회 음주 집단의 음주 양상과 연관된 변인이 아니었을 수 있으며, 이들이 평소 스트레스 경험에 대처하는 방식이 예상만큼 부적응적이지 않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음주 동기에 관한 집단 차 분석 결과, 대처 동기에서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더불어,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우울 및 사회불안에서도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혼술을 하는 이들은 음주가 자신의 부정 정서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돕고 정서적 불쾌감을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점을 가정할 수 있으며, 이는 혼술 집단이 부정 정서에 대한 자기 처방의 한 형태로 혼술을 택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Cooper, Frone, Russell, & Mudar, 1995; Keough et al., 2015; Skrzynski & Creswell, 2020). 아울러, 혼술 집단이 사회불안의 정도도 더 높게 나타나 이들이 사회적 장면에서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고 대인 관계로부터 스스로 철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혼술 집단이 단절과 거절 및 타인 지향성 도식 영역에서 모두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결과를 통해 혼술을 하는 이들이 사회 음주를 하는 이들에 비해 자기 및 타인에 관한 부정적 신념을 기저에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억제형 대처 양식에서도 혼술 집단이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볼 때, 혼술은 부정적 자기 신념을 반영하고 있는 초기 부적응 도식과 도식의 활성화로 인한 부정 정서 경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일 가능성이 있다. Hull(1981)에 따르면, 자기 인식(self-awareness) 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택하는 음주는 이후 문제 음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정적 자기 도식은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밝혀졌다(Corte & Zucker, 2008). 즉, 혼술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 초기 부적응 도식 및 억제형 대처 양식, 대처 동기와 같은 변인들은 알코올 사용장애의 위험 및 재발 요인으로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다만, 본 연구 결과로 인과 관계를 추론하기는 어려우므로, 각 변인 간 인과 관계에 대한 탐색은 추후 연구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혼술 및 사회 음주 집단을 선행 연구들의 기준에 비해 엄격하게 구분하여 문제 음주의 취약성으로 알려진 요인들과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높은 문제 음주의 빈도를 보이는 대학생 집단 내에서도 혼술 및 사회 음주로 구분되는 하위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히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양식, 우울 및 사회불안에서 더 부적응적인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혼술은 이후 문제 음주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가정에 기반할 때(Christiansen, Vik, & Jarchow, 2002), 본 연구의 결과는 혼술과 연관된 심리적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혼술 집단은 문제 음주의 근원 변인들로 알려진 초기 부적응 도식과 억제형 대처 양식과 연관되며, 자기 및 타인과 관련된 인지 도식과 도식을 활성화하는 스트레스 경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음주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에 참여한 혼술 집단의 표본 크기가 상당히 작았다. 더불어 혼술 집단 내에도 월 1회 이하로 사회 음주를 경험한 참여자들도 포함한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하위 유형을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음주 유형 집단별로 충분한 참가자를 모집하여 각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가설과 달리 사회 음주 집단과 연관된 심리적 요인을 구체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문제 음주 수준이 높은 사회 음주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규범과 관련한 사고 및 사회적 민감성 등 사회 음주 경험과 연관된 다른 변인들도 추가적으로 탐색해볼 필요

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 상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고양 동기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혼술을 하는 사람 중 일부는 긍정 정서를 증진시키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경험 표집법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부정 정서 뿐만 아니라 긍정 정서 상태가 혼술 및 사회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진행과 재발과 연관된 혼술이 어떤 위험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문제 음주 양상이 나타나는 대학생 집단을 위한 치료적 개입의 초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 김향숙 (2001). 사회공포증 하위 유형의 기억 편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여진, 오유미, 양유선 (2019). 혼술 경험자의 일반적 음주행태 및 혼술 행태 분석.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20(1), 25-37.
- 서경현 (2003). 음주 동기, 문제음주 및 음주 가족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2), 61-78.
- 신행우 (1998). 성격과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성진, 권석만 (2008). 심리치료에서 도식과 양식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91-117.
- 유아진, 서영석 (2017). 단절 및 거절 도식과 정서적 단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5), 41-60.
- 이동귀, 박현주 (2009). 대처양식 집단에 따른 꾸물거림 및 정신건강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43-57.
- 이미열 (2006). 청소년기 애착과 우울증과의 관계 :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규 (2017). 음주자 유형별 정신건강 분석 : 혼술 대 집단음주의 비교연구.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18(2), 1-14.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조성호 (2001).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77-192.
- 질병관리본부 (2017).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 심층조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최정화, 노기영 (2016). 사회적 규범 인식, 평가 성향, 음주의 사회적 편익인식이 대학생들의 음주 행위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 연구*, 20(3), 60-83.
- Ball, S. A., & Young, J. E. (2000). Dual focus schema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nd substance dependence: Case study result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7(3), 270-281.
- Bilevicius, E., Clark, C. C., Johnson, E. A., & Keough, M. T. (2020). Ashamed and Alone—Risk Factors for Alcohol Craving Among Depressed Emerging Adults. *Alcohol and Alcoholism*, 55(5), 540-546.
- Borsari, B., & Carey, K. B. (2001). Peer influences on college drinking: A review of the research. *Journal of Substance Abuse*, 13(4), 391-424.
- Borsari, B., & Carey, K. B. (2003). Descriptive and injunctive norms in college drinking: a meta-analytic integrat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 331-341.
- Bourgault, C., & Demers, A. (1997). Solitary drinking: a risk factor for alcohol related problems?.

- Addiction*, 92(3), 303-312.
- Christiansen, M., Vik, P. W., & Jarchow, A. (2002). College student heavy drinking in social contexts versus alone. *Addictive Behaviors*, 27(3), 393-404.
- Cooper, M. L. (1994). Motivations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17-128.
- Cooper, M. L., Frone, M. R., Russell, M., & Mudar, P. (1995). Drinking to regulat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990-1005.
- Cooper, M. L., Russell, M., & George, W. H. (1988). Coping, expectancies, and alcohol abuse: a test of social learning formul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2), 218-230.
- Corte, C., & Zucker, R. A. (2008). Self-concept disturbances: Cognitive vulnerability for early drinking and early drunkenness in adolescents at high risk for alcohol problems. *Addictive Behaviors*, 33(10), 1282-1290.
- Corbin, W. R., Waddell, J. T., Ladensack, A., & Scott, C. (2020). I drink alone: Mechanisms of risk for alcohol problems in solitary drinkers. *Addictive Behaviors*, 102, 106147. doi: 10.1016/j.addbeh.2019.106147
- Cox, W. M., & K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2), 168-180.
- Creswell, K. G., Chung, T., Wright, A. G., Clark, D. B., Black, J. J., & Martin, C. S. (2015). Personality, negative affect coping, and drinking alone: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o examine correlates of adolescent solitary drinking. *Addiction*, 110(5), 775-783.
- Evans, D. M., & Dunn, N. J. (1995). Alcohol expectancies, coping responses and self-efficacy judgment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Cooper et al.'s 1988 study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2), 186-193.
- French, C. L. (2007). *The mediating role of avoidance coping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anxiety and depression* (Publication No. 3308)[Master's thesi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Theses Digitization Project.
- Goldstein, A. L., Haller, S., Mackinnon, S. P., & Stewart, S. H. (2019). Attachment anxiety and avoidance, emotion dysregulation, interpersonal difficulties and alcohol problems in emerging adulthood. *Addiction Research & Theory*, 27(2), 130-138.
- Gonzalez, V. M., Collins, R. L., & Bradizza, C. M. (2009). Solitary and social heavy drinking, suicidal ideation, and drinking motives in underage college drinkers. *Addictive Behaviors*, 34(12), 993-999.
- Gonzalez V. M., & Skewes M. C. (2013). Solitary heavy drinking, social relationships, and negative mood regulation in college drinkers.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21, 285-294.
- Hasking, P., Lyvers, M., & Carlopio, C.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rategies, alcohol expectancies,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 behaviour. *Addictive Behaviors*, 36(5), 479-487.
- Hepner, P. P., Cook, S. W., Wright, D. M., & Johnson, W. C. (1995). Progress in resolving problems: A 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3), 279-293.
- Hull, J. G. (1981). A self-awareness model of the causes and effects of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6), 586-600.
- Keough, M. T., O'Connor, R. M., Sherry, S. B., & Stewart, S. H. (2015). Context counts: Solitary drinking explains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alcohol-related

- problems in undergraduates. *Addictive Behaviors*, 42, 216-221.
- Kuntsche, E., Knibbe, R., Gmel, G., & Engels, R. (2005). Why do young people drink? A review of drinking motiv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7), 841-861.
- Luoma, J. B., Guinther, P. M., Lawless DesJardins, N. M., & Vilardaga, R. (2018). Is shame a proximal trigger for drinking? A daily process study with a community sample. *Experimental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26(3), 290-301.
- Luoma, J. B., Pierce, B., & Levin, M. E. (2020). Experiential avoidance and negative affect as predictors of daily drinking.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34(3), 421-433.
- Neighbors, C., Larimer, M. E., Markman Geisner, I., & Knee, C. R. (2004). Feeling controlled and drinking motives among college students: Contingent self-esteem as a mediator. *Self and Identity*, 3(3), 207-224.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455-470.
- Perkins, H. W. (1997). College student misperceptions of alcohol and other drug norms among peers: Exploring causes,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for prevention programs. In T. W. Blume, W. D. Burns, M. Klawunn, G. M. Gonzalez, W. B. Hansen, H. W. Perkins, ... M. L. Williams (Eds.), *Designing alcohol and other drug prevention programs in higher education: Bringing theory into practice* (pp. 177-206). Newton, MA: The Higher Education Center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evention.
- Pierce, T., & Lydon, J. (1998). Perceived available support as a relational schema: Testing the buffering effects of activated and chronic interpersonal expec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441-1448.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iso, L. P., du Toit, P. L., Stein, D. J., & Young, J. E. (Eds.). (2007). *Cognitive schemas and core beliefs in psychological problems: A scientist-practitioner guid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per, L., Dickson, J. M., Tinwell, C., Booth, P. G., & McGuire, J. (2010). Maladaptive cognitive schemas in alcohol dependence: Changes associated with a brief residential abstinence progra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3), 207-215.
- Skrzynski, C. J., & Creswell, K. G. (2020). Associations between solitary drinking and increased alcohol consumption, alcohol problems, and drinking to cope motives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Addiction*, 115(11), 1989-2007.
- Wechsler, H., Lee, J. E., Kuo, M., & Lee, H. (2000). College binge drinking in the 1990s: A continuing problem results of the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1999 College Alcohol Stud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5), 199-210.
- Young, J. E. (1994).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Rev. ed.).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Professional Resource Exchange.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NY: Guilford Press.
- 원고접수일: 2023년 9월 19일
 논문심사일: 2023년 11월 17일
 게재결정일: 2023년 11월 17일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olitary and Social Drinkers

Hye-Rin Jeon
 Severance Hospital
 Department of Psychiatry

Hoon-Jin Lee Hye-Jin J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solitary and social drinking groups. Three hundred and thirty-three participants from a university answered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 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Drinking Motives Questionnair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Korean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Based on the results of AUDIT-K and Drinking Type Classification Scale, the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as a solitary drinking group ($n=24$), social drinking group ($n=140$), solitary and social drinking group ($n=30$), and nonproblematic drinking group ($n=121$).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olitary drinking group had higher scores in 'disconnection and rejection' and 'other directedness' schemas, suppressive and reactive coping styles, coping motives, an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compared to the social drinking group.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olitary drinking group, compared to the social drinking group, is more vulnerable towards problematic drinking, represented as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coping styles, and also suffers higher levels of psychological maladap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revealed 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solitary drinking, which is a known risk factor and recurrence factor for alcohol use disorders.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further discussed.

Keywords: Solitary drinking, Social drinking, Early maladaptive schemas, Coping styles